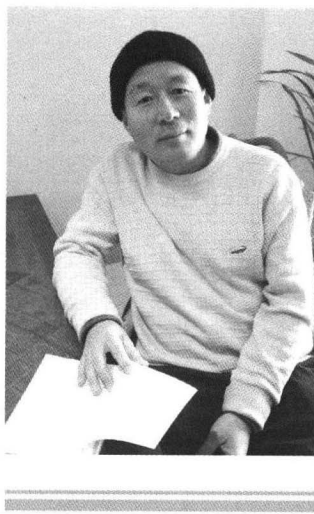


〈고려문화〉 발행인 강만수 시인

#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정신적인 구심점을 찾아주고 싶다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이 1937년에 일어났으니까 꼬박 70년 됐네요. 한국어로 말하고, 글을 쓰는 고려인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어로 문학 활동을 했던 고려인 1세대 작가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3~4대 젊은이들에게 고려인의 정체성을 되살려 주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창간한 〈고려문화〉 발행인 강만수 시인의 의지는 단호했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연해주 등지로 한국인들이 옮겨갔고, 1937년 재소 고려인의 강제이주 사건이 있는 직후 70년이 지난 오늘, 중앙아시아에만 35만 여 명의 한민족이 살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려인’이라 부른다. 같은 한민족이지만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힘껏 보듬어주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부족할 따름이다.

최석 시인과 작고한 양원식 선생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문인협회를 결성했고, 현재 50여 명의 문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고려문화〉의 편집위원인 최석 시인은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일보 주필이었던 양원식 선생과의 만남에서 서서히 퇴보해 가는 고려인 문학을 되살리자는 작가적 사명감이 〈고려문화〉를 창간하게 된 계기다. 현지에서 발행할 수 없는 여건이라 최석 시인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강만수 시인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작년 연초에 최석 시인이 한국에 와서 상의하는데, 참...머리 아프더라고요.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약속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지만 창간하게 됐습니다.”

청춘이라 부르던 시절에 문우였던 최석 시인과 강만수 시인은 후일에 문학잡지를 만들자던 약속을 30년이 지나서야 지키게 된 셈이다.

〈고려문화〉는 한국어로 글을 쓰는 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강만수 시인은 “향후에는 러시아어로 글을 쓰는 작가도 포용해야겠지만, 시작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옳지 않은 방향”이라면서, “기본적인 원칙은 고려인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편집방침을 설명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으로, 사라져가는 고려인의 문화를 되살리는 작업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점진적으로 고려문화 속에서 한국문학을 되살리는 작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천천히.”

창간호에는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명희 작가를 특집으로 다뤘다. 〈R군에게〉 〈낙동강〉 등의 소설을 쓴 조명희 작가는 동경 동양대학 철학과를 다녔고, 한설야, 이기영 등과 ‘카프’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러시아로 망명한 조명희 작가는 1938년도에 구소련 KGB에 의해 일제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했다. 강만수 시인은 창간호에 조명희 작가를 특집으로 다룬 의미에 대해 “약소민족의 비애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한다. 1970년 동안 발행 돼 온 〈고려신문〉이 그나마 고려인의 명맥을 유지해 준 매체인데, 지금은 운영난 때문에 어렵다. 때문에 〈고려문화〉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현재 한국작가로는 정상진, 이명재, 유안진, 최동호, 김준태, 김종희 씨가 〈고려문화〉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석 시인은 고려인 1세대 작가들의 문학, 미술 등 예술작품을 총망라해서 고려인 작가선집을 계획 중에 있다. 앞으로 문학뿐만 아니라 고려인의 연극, 음악, 미술 등 그들의 총체적인 문화를 〈고려문화〉에 담을 계획이다. **주필**

취재 정윤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